

# 사랑의열매

##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여성들과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는 다문화 가족과 여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및 미혼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취·창업을 도왔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보호하는 등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2  
03

## 연구와 나눔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

공모전 상금까지 기부하며  
이웃사랑 실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연구팀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 사랑의열매

##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여성들과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는 다문화 가족과 여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및 미혼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취·창업을 도왔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보호하는 등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Hanwha Defense**

**Export Records**

Year	Product	Country
1993	K200 한국형보병전투장갑차	Malaysia
2001	K9 자주포	Turkey
2004	K9 자주포	India / Finland / Norway
2017	상륙물류장갑차	UAE
2018	K9 자주포	Estonia
2021	K10 탄약운반장갑차	Australia
2022	K9 자주포	UAE, Egypt

안전 나르미카·사랑의 구르미카 제작에 참여한 한화디펜스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2022  
03

##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나눔기능장들

안전 나르미카·사랑의 구르미카 제작에 참여한 한화디펜스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79 2022 MARCH

##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여성들과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는 다문화 가족과 여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및 미혼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취·창업을 도왔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보호하는 등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2  
03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업 문화의  
선두 주자

시스템 반도체 첨단 백엔드  
파운드리 전문 기업  
네패스의 이유 있는 나눔경영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ISSUE 179 2022 MARCH

#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79 2022 MARCH

사랑의열매

##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여성들과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는 다문화 가족과 여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및 미혼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취·창업을 도왔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보호하는 등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2  
03



너희들의 꿈을  
응원해!

꿈성장 사업 통해  
적성별 맞춤 지원 나선  
전북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sorakim0129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를 기록하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자원재생활동가)의 폐박스를 고가에 매입해서 업사이클링해 만든 페이퍼 캔버스, 며칠 전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했는데 리워드로...^^ 나태주 산문집의 글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속 꽃밭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자원재생가어르신들 #나눔에인색하지말자 #러블리페이퍼 #열매둥이와절친먹는중 #사랑의열매

jjyu\_228



#2022년첫봉사 처음 해보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군밤 모자 쓰고 출동! 연탄이 생각보다 무겁고 비탈진 언덕을 오르는 게 힘들긴 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뿌듯...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소중한 봉사 활동. 함께 나른 연탄으로 남은 겨울도 따뜻하게 나시길! #봉사활동 #자원봉사 #봉사스타그램 #연탄 #사랑의연탄 #연탄봉사 #사랑의열매 #자만벽화마을 #일상그램 #일상기록 #주말스타그램

yujian934



사랑의열매 나눔온도탐 #사랑의열매 #서울광장

####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나눔을 함께 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쌤님(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 쌤님은 2018년 나눔리더를 시작으로 사랑의열매와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가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메이크업을 도와드리며 기억에 남을 사진을 남기는 일에 함께했고, 이웃을 위한 생활용품 기부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79 2022. 03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김도현 전임연구원,  
이태원 박사, 심재웅 수석연구원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3월 / 통권 179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 04

### 희망2022나눔캠페인 마지막 이야기

겨울 속 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06

### 모두의 나눔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오늘의 여성을 응원합니다

## 12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글로벌투게더경산

## 16

### 내 인생의 한마디

대전 아너 73호 백마강 참숯만물장어  
김기남 대표

## 20

### 클라우드펀딩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 21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북부·강원·서울·인천·경기

## 32

### 기부 트렌드

2022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 34

### 착한 열매술랭

이웃들이 인정하는 인천 맛집

## 38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아이 첫돌부터 10년간 생일 기부

약속한 이지원·고가솔 부부

## 40

### 착한기업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79 2022. 03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안전 나르미카·사랑의 구르미카 제작에 참여한  
한화디펜스 박철수 마이스터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3월 / 통권 179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 04

### 희망2022나눔캠페인 마지막 이야기

겨울 속 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06

### 모두의 나눔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오늘의 여성을 응원합니다

## 12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글로벌투게더경산

## 16

### 내 인생의 한마디

대전 아너 73호 백마강 참숯만물장어  
김기남 대표

## 20

### 클라우드펀딩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 21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 32

### 기부 트렌드

2022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 34

### 착한 열매술랭

이웃들이 인정하는 인천 맛집

## 38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아이 첫돌부터 10년간 생일 기부

약속한 이지원·고가솔 부부

## 40

### 착한기업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79 2022. 03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네패스 기업문화센터 공감팀 임예원 스타, 반도체 사업부 김남철 사장, PKG 설비기술팀 윤한결 스타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3월 / 통권 179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 04

### 희망2022나눔캠페인 마지막 이야기

겨울 속 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06

### 모두의 나눔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오늘의 여성을 응원합니다

## 12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글로벌투게더경산

## 16

### 내 인생의 한마디

대전 아너 73호 백마강 참숯만물장어  
김기남 대표

## 20

### 클라우드펀딩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 21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북·충남·세종·대전

## 32

### 기부 트렌드

2022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 34

### 착한 열매술랭

이웃들이 인정하는 인천 맛집

## 38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아이 첫돌부터 10년간 생일 기부

약속한 이지원·고가솔 부부

## 40

### 착한기업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79 2022. 03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꿈성장 지원 사업에 선발된 유도 유망주  
고창 영선중학교 2학년 이채영 학생

## 04

### 희망2022나눔캠페인 마지막 이야기

겨울 속 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06

### 모두의 나눔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오늘의 여성을 응원합니다

## 12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글로벌투게더경산

## 16

### 내 인생의 한마디

대전 아너 73호 백마강 참숯만물장어  
김기남 대표

## 20

### 클라우드펀딩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 21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북·전남·제주·광주

## 32

### 기부 트렌드

2022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 34

### 착한 열매술랭

이웃들이 인정하는 인천 맛집

## 38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아이 첫돌부터 10년간 생일 기부  
약속한 이지원·고가솔 부부

## 40

### 착한기업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3월 / 통권 179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왼쪽부터) 홍보대사 허재, 홍보대사 전제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 홍보대사 솔지가 캠페인 폐막식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전했다.

62일간 소복소복 쌓인 나눔의 기적

# 겨울 속 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2월 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희망2022나눔캠페인 폐막식이 열렸다. 캠페인 출범 당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마음이 얼어붙을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전해온 나눔 온기로 사랑의온도탑은 펄펄 끓어올라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 함께 만든 따뜻한 나눔온도 115.6℃

지난 2021년 12월 1일 시작한 희망2022나눔 캠페인이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모인 모금액은 4,279억 원이며, 사랑의온도탑 최종 나눔온도는 목표한 100℃를 훌쩍 넘어 115.6℃로 종료됐다. 정성을 모아준 국민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2월 3일 캠페인 폐막식이 열렸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허재·솔지가 참석했으며, 홍보대사 전제향 씨가 사회를 맡았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캠페인 경과 보고, 감사 말씀, 참석자 전원의 대국민 감사 인사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 48일 만에 목표 모금 조기 달성

이번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총모금액은 4,279억 원으로 전년 캠페인 대비 235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개인 기부금은 1,226억 원(28.7%), 법인 기부금은 3,053억 원(71.3%)으로 지난 캠페인에 비해 각각 170억 원, 64억 원이 더 모금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48일 차인 지난 1월 17일에 101.3℃를 기록하며 100℃를 조기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해보다 기부금을 증액한 기업과 아너 소사이어티는 물론, 작은 돈으로 큰 나눔을 실천한 개인 기부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교육·차립 지원 등 4대 나눔 목표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

### 보내주신 나눔, 희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긴 겨울 끝에 꽃 소식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봄이 도착했습니다. 기적의 온도 눈금에 닿기까지 차곡차곡 온정을 쌓아 올려주신 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전합니다. 소중하게 모아주신 마음은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이라는 선물로 전해질 것입니다.”

- 사랑의열매 김정숙 명예회장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모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백신과 이웃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사랑의열매는 여러분이 모아주신 따뜻한 사랑을 곳곳에 전하며 민간 나눔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나눔은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사랑이 쌓인 덕분에 사랑의온도탑도 100℃를 넘을 수 있었어요. 많은 분이 함께해주신 덕분에 지금 몸은 춥지만, 마음만은 정말 따뜻합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솔지



“사실 사랑의열매에 관심이 많았는데 홍보대사가 너무 늦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웃음) 사랑의온도탑 100℃ 달성을 넘어 앞으로도 많은 분이 나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늦게 합류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허재

# 존중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오늘의 여성을 응원합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100명당 6명은 다문화가정의 아이였다. 그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사랑의열매와 전국의 나눔 협력 기관들은 다문화가정과 그 중심점이 되는 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조성름



##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 사업

사단법인 아시아의창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미취학 자녀 양육 환경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부모들은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보육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 아시아의창은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이주노동자 부모들이 좀 더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를 보육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서비스는 물론, 균형 잡힌 식단, 개인 특성에 맞는 눈높이 교육 등도 제공한다. 또 부모에게는 올바른 양육 지식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상담 등 양육 교육도 진행하며 가정 양육의 질적 향상을 돕는다.



1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2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한 식단  
3 아이들과 함께한 성탄절 파티



## 미혼한부모 자녀 학습 발달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 365키즈키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혼한부모 자녀는 2020년 기준 31,939명으로 많은 수의 미혼한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양육 및 교육, 취업,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 아동의 삶과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2017년부터 KB손해보험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미혼한부모 학령기 자녀에게 1년에 두 번 365키즈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을 합쳐 총 130명에게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자녀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긍정적 학습 발달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책가방, 학습 교재, 학용품으로 구성된 1학기 365키즈키트



### Mini Interview



홀트아동복지회  
원지현 담당자

**365키즈키트 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저희는 소득 분위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들까지 지원에 포함해 신학기 물품 구입에 대한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365키즈키트 구성품을 선정할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책가방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남녀별 선호 색상, 학년에 따른 체형 등을 고려해 지원하지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습 교재를 지원해 집에서도 진도에 맞춰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65키즈키트로 받은 책가방을 멘 후 후기를 남긴 어린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 인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365키즈키트를 받은 후기를 올려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책가방을 받고 아이가 너무 좋아서 잘 때도 메고 잔다는 후기가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또 미혼한 부모가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잘 키우겠다는 글을 보며 담당자로서 365키즈키트 사업을 더 잘 꾸려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사랑의열매와 KB손해보험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부처인 KB손해보험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업 검토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을 듯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실시 과정에서도움을 준 사랑의 열매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정보 번역·상담 프로젝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는 막연한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물며 낯선 한국 땅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특히 알림장과 가정통신문은 학교와 가정을 잇는 중요한 소통 창구지만, 한국어가 낯선 이주여성에게는 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행복나눔재단에서는 지난해 코오롱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알림장과 가정통신문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번역이 필요한 알림장 등을 학교 교사가 활동가에게 보내면, 활동가는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활동가는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대일 상담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왔다. 지난해 64개 학교에서 9개 언어로 교육 정보를 번역했고, 한국어에 능통한 12명의 이주여성이 활동가로 참여해 번역 및 상담을 맡았다.



### Mini Interview



행복나눔재단 박정하 매니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 만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을 듯합니다. 앞서 진행한 파일럿 사업이 코로나 19 팬데믹과 맞물려 학사 일정 변경과 비대면 수업, 개인 방역 안내 등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알림장 번역과 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선별 검사 등 활동가조차 낯선 용어를 바로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안내 등을 시기적절하게 알릴 수 있어서 번역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과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통신문 사전 번역 서비스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도 하지 않는 '알림장' 번역을 '실시간'으로 하고, '상담'까지 해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실시간 소통을 이어주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까지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활동가로 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활동가는 낯선 타국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본 경험과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경험도 있습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준비물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이들 숙제는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 때로는 언니처럼, 든든한 동생처럼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지지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와 코오롱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업의 사회 공헌은 장애인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코오롱과 사랑의열매에서 '다문화'와 '여성'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공감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비대면으로 진행한 활동가 워크숍  
2 카카오톡을 활용한 실제 알림장을 번역하는 모습 3 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알림장 번역 실습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글로벌투게더경산

## “낮선 한국살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활짝 피어납니다”

지난 2월 17일 경북 경산에 문을 연 플라워카페 이음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세련된 인테리어, 예쁜 꽃, 다양한 카페 메뉴까지 걸보기엔 여느 카페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곳은 낮선 한국 땅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향긋한’ 일터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글로벌투게더경산

### 어서 오세요, 플라워카페 이음입니다

정식 오픈을 하루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플라워카페 이음을 찾았다. 1층 한쪽에서는 플로리스트가 꽃을 정리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바리스타가 향긋한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름처럼 이곳은 ‘꽃’과 ‘카페’가 결합한 플라워카페다. 2층으로 올라가면 넓은 유리창 너머로 남천강변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양한 각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 배치에도 신경 썼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지만, 곳곳에 놓인 싱그러움 초록 식물과 꽃들이 생기를 불어넣는다.

마침 지나가던 여성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카페 곳곳을 스마트폰에 담는가 하면, 꽃을 보며 열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그들이 고심 끝에 고른 브런치 메뉴와 커피를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과 함께 짧은 감탄사를 뱉어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커피와 브런치 메뉴는 물론 싱싱한 꽃과 식물들 모두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숭한 연습과 고민 끝에 선보인 결과물이었다.



(위줄 왼쪽부터) 바리스타 장소리, 글로벌투게더경산의 이효진 (아랫줄 왼쪽부터) 플로리스트 바트게렐, 글로벌투게더경산의 김혜인, 이은희 팀장

###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글로벌투게더경산

플라워카페 이음을 운영하는 곳은 글로벌투게더경산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경산시가족센터를 수탁해 교육·상담·문화 사업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여성의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플라워카페 이음과 경북 구미에 플라워 이음, 대구대학교 내 카페 이음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반, 바리스타 자격증반, 창업을 위한 소양교육반 등 취·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직업체험반을 통해 아로마테라피스트, 가죽 공방 직업, 수제 청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체험을 하며 참여자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취·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자는 카페 이음, 플라워 이음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강화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해 글로벌투게더경산은 삼성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 사업 보완에 나섰다. 플라워 이음 경산점과 구미점, 카페 이음 대구대점이 문을 연 지 6~8년 된 터라 급변한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소비까지 위축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플라워 이음 경산점의 외부는 도매를 하는 하

1 몽골에서 온 바트게렐 씨는 플라워 이음 때부터 손을 맞췄은 플로리스트다. 2 중국에서 온 장소리 씨는 카페의 식음료를 담당하며 바리스타로 거듭나는 중이다. 3 꽃과 카페가 공존하는 플라워카페 이음



1



2



3

4 바리스타를 꿈꾸며 열심히 배우는 참여자들  
5 작품을 만드는 플로리스트 자격증반



4



5

우스느낌이 강해 소비자의 진입 문턱이 높았다. 이에 플라워카페로 확장 이전하기로 한 것. 그 결과 누구나 오고 싶을 만큼 산뜻하고 감각적인 플라워카페 이음으로 재탄생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근로 환경을 개선했으며, 플로리스트와 바리스타를 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향후 이곳을 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카페 이음 대구대점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하는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제 만반의 준비는 마쳤다. 낯선 한국 땅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과 든든한 동료까지 있으니 이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능력을 맘껏 꽃피우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

### MINI INTERVIEW

### 글로벌투게더경산 최시혜 사무국장



**글로벌투게더경산에서 플라워카페 이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는 4월 17일이면 글로벌투게더경산이 문을 연 지 꼭 10년이 됩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삼성과 사랑의열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지난 10년 동안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향후 10년은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플라워카페 이음이 바로 그 중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라워카페 이음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금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의 응원과 지원,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이쯤처럼 다문화사회와 일반 사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소통하고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 아너 73호 백마강 참숯민물장어 김기남 대표

# 사업도 기부도 소금구이처럼 기교 없이 담백하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은 '황금·소금·지금'이라는 말이 있다. 대전 아너 73호인 김기남 대표는 세 가지 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황금으로 사람을 얻고, 소금으로 장어의 맛을 지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기부를 시작했다. 글강보라 사진 김기남

## 최고의 기부 타이밍은 '지금'

대전에서 백마강 참숯민물장어를 운영하는 김기남 대표는 대전 아너 73호이다. 아너 가입으로 매년 2천만 원의 약정 기부를 이어가는 그는 완납 이후에도 지금의 기부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 위해서 기부한 게 아니라 기부를 위해서 시작한 일니까요." 기부 타이밍도 눈길을 끈다. 김기남 대표는 '지금'이 기부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그

는 자금 조달로 20억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기부를 결심했다. 당시 임대료 운영 중인 세 개 지점(변동점, 유성점, 비래점) 중 두 개 지점에서 매매 요구가 들어온 상황이었다.

"매대로 20억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대출을 다 갚고 기부를 하려니까 시기가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늦추다 보면 언제 또 얼마나 늦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그래서 먼저 2천만 원을 기부하고 대출을 받았 습니다."

기부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불멘소리도 들었다.

"그 돈으로 '나부터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죠.(웃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도와달라는 소리도 내기 어려운 이 웃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 김기남 대표의 재산목록 1호

백마강 참숯민물장어는 장어 맛집이기도 하지만, 친절함 서비스로도 유명한 곳이다. 식당 후기에도 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여기에는 사람을 귀하게 쓰는 김기남 대표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는 함께 일하는 직원을 신뢰하며 신뢰하는 만큼 권한도 내어준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로 대하는 것이다. "돈은 직원들이 벌어드 주는 것"이라고 투박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

"매장 직원을 아들이냐고 물어오는 손님들이 계세요. 그건 다행이 아니라 내 것처럼 열심히 일하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저에게는 그렇게 아들 같은







“기부하기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음이 시킬 때  
하세요.”

— 김기남 대표는 장어 소금구이 하나로  
대전 지역을 평정했다.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웃음)  
김기남 대표는 재산목록 1호로 ‘사람’을 꼽는다. 귀하게 여기는 만큼 야심있는 지원을 한다. 실제로 그는 결혼하는 남자 직원들의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의 도움으로 벌써 네 명의 직원이 결혼을 했다.  
유성점의 심효섭 실장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라고 평하며 “믿음이 믿음을 낳았다”고 말한다. 사람에게 대한 존중은 매장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대표님

은 다른 곳처럼 직원을 내보내거나 식재료 비용을 줄이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아주신 손님들께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 하셨죠.” - 심효섭 실장

#### 나눔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리라

백마강 참숯민물장어는 장어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곳이다. 30년 양식기술을 자랑하는 부여정보수산의 장어를 사용하는데, 이곳은 김기남 대표의 사촌 동생이 운영하고 있다.  
“저희 집안에서 기르는 장어가 제일 튼실하고 맛있

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목받거나 찬사받는 일보다 드러나지 않아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선다. 그는 아너 가입 이전부터도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회관 등 다양한 기관의 봉사로 주변을 살피며 이웃들을 챙겼다.

#### 민들레 흩날리듯 퍼지는 선한 영향력

김기남 대표는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의 이모부이기도 하다. ‘대전의 아들’로 불리는 황인범 선수는 이번에 대전지회 96호 아너로 최연소 회원(2021년 12월 가입)이 됐다. 황 선수의 아너 가입에는 이모부인 김기남 대표의 영향이 컸다.

“인범이는 실력도 출중하지만, 인성이 바른 아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예뻐했어요. 높은 위치에서도 남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죠. 평소에 나눔과 기부에 대한 기쁨을 자주 이야기했는데, 인범이의 선행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얼마 전 딸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맡은 김기남 대표는 김혜진·이진혁 부부에게 “사회 주변을 둘러보며 돕고 살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도 행복해야 하거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겠지만, 기부와 나눔으로 누군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겁니다.”

김기남 대표가 생각하는 주변의 범위는 ‘전 세계’이다. 그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똑심 있는 그의 실천력 때문이다. 그의 나눔이 선한 물결처럼 퍼져 조카인 황인범 선수와 딸 부부를 이끌듯 주변 모두에게 퍼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김기남 대표의 나눔이 민들레 흩날리듯 퍼지고 퍼져 전 세계의 환한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본다. 🌸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위탁형 대안학교 아이들이 여행과 심리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펀딩을 진행한다.

클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3~5월

목표 금액 300만 원


모금 사용 여행 프로그램 활동비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클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힐링 여행을 선물해주세요!**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애들아, 선생님과 여행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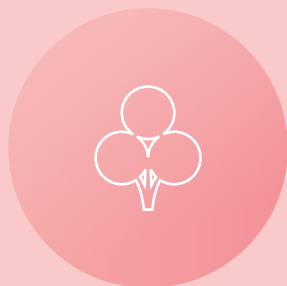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 안에도, 바깥에도 속해 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입니다. 정형화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자 탄생한 곳이지요. 아이들은 저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대안학교에 옵니다. 이 아이들이 친구,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심리적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



# 3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 경기북부 강원 서울 인천 경기





공모전 대상 수상 상금 전액 기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연구팀

“연구로, 기부로 사회에 더 기여하고 싶습니다!”

연구원은 더 베스트 착한일터에 선정되고, 연구팀원들은 나눔리더에 가입하고, 연구팀을 이끈 박사님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그야말로 나눔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야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글강은진 사진 이승재, 경기북부사랑의열매

논문 대상, 나눔으로 기쁨 더해

2021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팀이 화제다. <화재 안전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물 외벽 시스템 개발> 논문으로 국민을 화재로부터 지키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했을 뿐 아니라, 상금 전액을 기부하고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의미를 더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김도현 전임연구원과 심재웅 수석연구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을 나눔으로 이끈 건 같은 연구팀 이태원 박사다. 2019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이 박사는 20여 년간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연구 성과가 활용되면 받는 기술료 상당도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할 정도.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고양시 32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노트북 80대를 지원하는 등 많은 선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작은 영웅이

— 김도현, 심재웅  
연구원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식 모습



다. 연구원들이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연구원들이 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먼저 제안했고, 이 박사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소개했다.

연구와 기부로 사회에 이바지할 터

심재웅 수석연구원은 “연구한 것을 나누고, 얻은 성과를 베푸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전임연구원은 “박사님처럼 훌륭한 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면서, “본받고

싶었지만 시작이 막막했는데, 좋은 출발이 된 것 같다”고 뿌듯해했다. 두 연구원은 “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책에도 소개하고 환대해주셔서 쑥스럽다”고 했다. “함께 어울려 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말을 아끼는 이 박사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다. 수많은 기부와 봉사를 해왔으면서도 인터뷰에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또한 나눔을 시작한 연구원들의 출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이태원 박사의 배려가 따뜻하기 그 지없다. ❀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맞아요.”

— 이태원박사

“박사님의 이웃사랑, 본받고 싶었죠!”

— 김도현 전임연구원

“나눔은 발자국, 다음 걸음을 준비할게요!”

— 심재웅 수석연구원



설 명절 사업으로 2억 9,000여만 원  
지원한 강원 사랑의열매

## “강원도의 설은 따뜻합니다!”

강원 사랑의열매가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도내 8,600여 가구에 약 2억 9,000만 원 규모의  
설 명절 지원에 나선 것. 글 강은진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설 명절 지원사업 전달식에 참석한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가운데 왼쪽)과  
강원도 최복수 행정부지사(가운데 오른쪽) 및 관계자들의 기념 촬영 모습



### 따뜻한 설 위한 예산 집행

강원 사랑의열매가 설을 맞아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 만들기에 나섰다. 설 명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2억 9,000만 원을 지원한 것. 지난 1월 26일, 강원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과 강원도 최복수 행정부지사 및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설 명절 사업은 현금 약 2억 9,000만 원 규모로, 모두 각 지자체를 통해 추천받은 8,629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등 소외 계층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만큼 이웃들이 직접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섬세하게 배려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사랑의열매를 통해 모인 도민들의 온정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행복박스로 온기 더한 나눔봉사단

춘천시 나눔봉사단도 강원 사랑의열매 설 명절 사업의 일환으로 춘천도시공사 체육관에서 저소득층 300여 가구에 전

달할 행복박스를 만들었다. 떡국 떡, 국수, 만두, 김 등 일곱 가지 물품으로 구성된 행복박스는 긴 연휴 기간 도시락 배달 및 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과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2015년부터 해마다 설·추석 명절 기간에 행복박스 지원 봉사 활동을 해오며 강원 사랑의열매 설 명절 사업에 온기를 더했다. 한금동 단장은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모두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눔으로 마음만큼은 따

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매년 이웃들의 풍요로운 명절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단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설 명절 사업을 통해 강원도 한부모 가정, 청소년 가정, 홀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풍요로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고 있다. ❀

“강원도의 모든 이웃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2015년부터 설·추석 명절이면  
행복박스 지원 봉사를 해온  
춘천 나눔봉사단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10개소에 전기 차량 지원한 신한은행

“함께 동행합시다!”

소외 계층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신한은행. 이번엔 1인 가구를 위해 나섰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1인가구 자립 도와

서울 사랑의열매는 신한은행과 함께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10개소에 전기 차량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그리고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대표해 성동구가족센터 김은정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신한은행의 사회 공헌 사업인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1인 가구에 보다 원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은 “신한은행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다양

한 사회 소외 계층의 기초 생활을 지원하고, 실질적 자립을 돕는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 29곳에 차량, 44곳에 유류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방학 기간 결식아동 250가정에 밀박스, 안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200명에게 한국어 교육과 심리 치료, 홀몸 어르신 1,000명의 명절 영양식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 성동구가족센터 김은정 센터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신한은행 안준식 브랜드 홍보부장이 차량 전달식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서울 사랑의열매와 착한일터 업무 협약 맺은 (주)안세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보다 뜻깊어”

착한일터 가입과 동시에 4,000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 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시작한 기업이 있다. 바로 (주)안세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주)안세 안병근 대표(왼쪽 세 번째)와 서울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왼쪽 네 번째)이 착한일터 기부 전달식을 진행하는 모습

임직원들, 4,000만 원 기부금까지 모금해

(주)안세(대표 안병근)가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무엇보다 가입과 동시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2,000만 원과 회사의 매칭 그랜트 2,0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하며 본격적인 나눔을 시작해 그의 미를 더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

를 다해온 (주)안세는 그동안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또 안병근 회장 역시 2012년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10호 회원으로 가입, 10여 년간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많은 귀감이 되었다. 이제는 착한일터 가입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안병근 회장은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착한일터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1975년에 창립한 (주)안세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생산과 수출입 무역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 생명공학, 의료 정보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해온 기업이다. ❀

1,000만 원 성금 전달한 명예  
인천시민 하이삼 후세인 대표이사

“한국은 제2의  
고향, 이웃사랑  
당연해요!”

무역업체 두름 리비아(주) 하이삼  
후세인 대표이사가 인천의 이웃들을  
위해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하이삼 후세인 대표이사, 인천항발전협의회 이용국 부회장의 성금 전달식

인천의 이웃을 위해

인천의 대표적인 무역업체 두름 리비아 (Doroub Libya)(주) 하이삼 후세인 대표이사가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월 26일, 인천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하이삼 후세인 대표이사, 인천항발전협의회 이용국 부회장(버텍스 쉬핑 대표 이사), 이한용 차장,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이정윤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리비아의 큰손으로 불리는 하이삼 후세인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인천을 거점으로 현대, 기아차 부품부터 시작해 한국 중고차 등을 수출해 대한민국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고차 수출 증대로 인천항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시 명예시민이 되기도 했다. 평소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리비아뿐 아니라 제2의 고향인 한국의 소외된 노인과 아동들을 지원해오던 중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의 권유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것. 하이삼 후세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면서, “한국과 리비아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나눔은 세계 공통언어이자 감성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인천의 이웃들을 위해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하이삼 후세인 대표이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

희망2022나눔캠페인 동참한  
인천 사회복지 직능 단체 및 종사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직능  
단체들이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해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왼쪽 세 번째부터) 인천시 김충진 복지국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이명숙 회장, 인천시 백보옥 복지서비스과장,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정성으로 모은 성금

인천 사회복지 직능 단체 및 종사자들이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510만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이명숙 회장, 전홍윤 사무처장, 인천시 김충진 복지국장, 백보옥 복지서비스과장,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

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연말연시 캠페인 기간을 맞아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 및 분야별 직능 단체들은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십시일반 정성으로 성금을 모은 것.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인천 지역 이웃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에 이번 기부는 보다 특별하게 다가왔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이명숙

회장은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인천의 각 사회복지 분야별 종사자들과 함께 성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특히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마음을 모아주신 성금은 인천의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한국머크, 경기 지역아동센터 지원 위해 상품권 전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소외 계층 아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기업이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한국머크다.

글강은진 사진경기사랑의열매



현물 전달식의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과 한국머크 반도체 비즈니스사업부 권기용 총괄



2,000만 원 상당 상품권 기부

지난 1월 27일 경기 사랑의열매에서 한국머크의 현물 전달식이 있었다. 머크는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GSFC)와 함께 경기도 평택지역에 위치한 네 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에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머크 반도체 비즈니스 사업부 권기용 총괄과 SK하이닉스 황석진 영업헤드, GSFC 김용문 센터장,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계적인 독일 기업 머크사의 한국 법인인 한국머크는 제약 및 최첨단 생명과학과 시약 사업을 하는 선도적 과학기술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한국머크 대표 김우규 박사는 “머크의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키우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역사회 아이들 지원 앞장서

한국머크는 지난 2020년 안산 다문화센터의 디지털 교육을 위한 지원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 문화 교육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고려해 이번에 선정된 네 곳의 지원을 통해 아이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GSFC 김용문 센터장은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와 소외 계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머크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우리 아이들에게 머크의 따뜻한 온기를 잘 전달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

3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 방산 기업인 한화디펜스 창원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금속 용접 분야 기능장 박철수 마이스터

안전 나르미카·사랑의구르미카 제작에 참여한 박철수 마이스터

# 기능장이 만든 어르신의 안전한 길동무

독자적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종합 방산 기업인 한화디펜스. 이곳에는 업무의 특성상 각 분야 우수 숙련 기술인을 뜻하는 마이스터가 많다. 그중에서도 창원사업장에 있는 마이스터들은 자신이 지닌 기술을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진정한 '나눔 기능장'들이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경남 사랑의열매

**어르신들의 보물 1호 안전 나르미카**

몇 년 전, 폐자원을 수집하는 어르신이 내리막길에서 가속도 붙은 자신의 리어카를 멈추지 못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는 2015년, 어르신의 리어카 개조 사업을 기획했다. 한화디펜스 창원사업장의 기술진들로 구성된 재능봉사 팀이 결성되었고, 경남 사랑의열매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안전 나르미카' 어벤저스 팀이 탄생했다. 금속 용접 분야 최고 기능장으로 꼽히는 박철수 마이스터도 어벤저스 팀 중 한 사람이었다. "기존 리어카가 58kg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었어요. 안전 나르미카는 경량화에 초점을 맞췄죠. 무게는 22kg에 불과하며 접이식으로 어르신들의 집에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야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형광 도색·경광등·경적벨을 설치했습니다." 안전 나르미카를 전달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2015년부터 안전 나르미카를 총 242대 제작·지원해 어르신들이 짊어졌던 무게를 덜어주는 보물이 되었다.

**사랑의구르미카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안전 나르미카의 성공에 힘입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와 한화디펜스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이른바 '실버카'로 부르는 어르신의 보행 보조기 개조에 나선 것. 이번에도 박철수 마이스터가 다시 한번 힘을 보탰다. '사랑의 구르미카'는 어르신의 신체 특성에 맞춰 설계했으며,

산업용 바퀴를 장착해 튼튼하면서도 길 상태에 상관없이 어디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걷다가 힘들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갖추었다. 사람이 앉으면 기둥이 내려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제품**

안전 나르미카와 사랑의 구르미카는 한화디펜스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만드는 것은 물론, 제작에 필요한 비용 역시 급여 1%를 모아 조성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손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참여 직원들의 기부 만족도가 높다. 안전 나르미카와 사랑의 구르미카를 어르신에게 전달할 때면 제작에 참여한 한화디펜스 직원들도 동행한다. 어르

신들의 웃음 가득한 얼굴을 보고, 계획한 대로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명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제품처럼 획일화된 공정이 아니라 직원들이 하나 하나 만든다 보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이 한 개도 없지만, 그것을 만든 한 사람의 땀과 시간, 노력이 더해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르미카와 구르미카가 탄생하는 거죠." 박철수 마이스터는 한 분야에 오래 몸담으면 누구나 기능장이 될 수 있다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다. 오히려 자신의 기술을 이렇게 다른 이를 위해 쓸 기회를 준 회사와 많은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사랑의 구르미카, 안전 나르미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한화디펜스의 박철수 마이스터 같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 가볍고 산뜻하게 바뀐 안전 나르미카

2022년 첫 나눔명문기업 단체 가입

# 새해를 나눔으로 여는 나눔명문도시 부산의 위상

지난해 12월 부산 시내 4개 기업이  
나눔명문기업에 단체 가입을 하며  
훈훈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단체 가입식이 진행됐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번에도 4개  
기업이 뜻을 모아 나눔을 실천했다.

글 이선희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부산시 박성환 복지정책과장, 부산 사랑의열매 박은덕 사무처장, (주)마상소프트 강삼석 대표이사,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민현 대표,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주)에이비엠 김병철 회장, (주)오리엔탈정공 박세철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이선아 사회복지국장, 부산 사랑의열매 박영희 모금사업팀장



## 단숨에 나눔명문기업 23호 달성

코로나19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기업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 기업들의 나눔 실천이 유독 눈에 띈다. 특히 나눔명문기업 단체 가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희망2022나눔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주)유니테크노, 유카로오토모빌(주), (주)코렌스, 주식회사코리녹스까지 4개 기업이 부산 사랑의열매에 나눔명문기업으로 단체 가입을 했다. 이번에는 (주)마상소프트(대표이사 강삼석),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민현), (주)오리엔탈정공(대표이사 박세철), (주)에이비엠(회장 김병철)이 각각 1억 원씩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 단체 가입의 명맥을 이었다. 이로써 부산은 2년 만에 나눔명문기업 23호까지 탄생하는 등 나눔명문도시로서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

## 지역사회를 위해 한마음 한뜻

지난 2월 3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단체 가입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주)마상소프트 강삼석 대표이사,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민현 대표, (주)오리엔탈정공 박세철 대표이사, (주)에이비엠 김병

철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게임 유저들과 6년째 기부를 이어온 (주)마상소프트, 희망2015나눔캠페인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8년째 부산 사랑의열매에 나눔을 전하는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05년부터 소외 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온 (주)에이비엠은 지속적인 기부 경험을 기반으로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자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오리엔탈정공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여파를 딛고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재무적 독립을 실현한 것을 자축하고자 이번 단체 가입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조성한 성금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약자 돌봄, 교육과 자립이라는 4대 지원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가입한 나눔명문기업 네 곳은 부산 사랑의열매와 함께 오랫동안 나눔을 펼쳐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입이 어느 때보다 뜻깊습니다.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온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임에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온 기업에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행복한 사람들’(주)동현메탈 김창연 대표이사

##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향하여”

지난 2월 8일 대구 사랑의열매에 197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주)동현메탈 김창연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나눔을 실천하는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참고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사람들

(주)동현메탈 김창연 대표이사(왼쪽)와 대구 사랑의열매 김누리 사무처장이 함께한 아너 가입식



### 친동생을 위한 어느 특별한 나눔

김창연 대표가 몸담고 있는 (주)동현메탈은 대구 칠곡군 왜관산업단지 내 위치한 폐전선, 폐변압기 종합 재활용업체다. 겉보기엔 어느 기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회사 수익금을 환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 사회 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구 사랑의열매 아너 가입식에서도 김창연 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너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밝혔을 정도. 그가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 중에서도 유독 장애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7년 세상을 떠난 친동생을 그리워하는 그만의 방법이었다.

### 행복한 사람들과 사람

김창연 대표의 동생은 장애가 있었다. 떠난 동생을 그리워할수록 장애인이 처한 현실이 눈에 밟혔다. 그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사람들’을 설립해 이사를 맡아 운영까지 하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행복한 사람들은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외부 지원 없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장애인 복지시설을 마련해 연고가 없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보살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주)동현메탈 김창연 대표이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장애인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 학생을 위한 장학 사업, 자립 지원, 사회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그는 안정적인 회사 운영,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공헌 활동 등 남부러울 것 없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내일을 꿈꾼다.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 김창연 대표다. ♡



20여 년째 한결같은 따뜻한 진심

# 울산 나눔온도를 높인 일등 공신 대한유화(주)

대한유화(주)는 1970년에 설립해 국내 최초로 합성수지 공장을 준공하며 한국 석유화학 산업을 개척했다.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울산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중추적 역할을 한 일등 공신이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대한유화주식회사의 희망2022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



## 캠페인 목표액 33%에 달하는 성금 기탁

지난 1월 12일 울산시청에서 대한유화(주)(대표이사 강길순)의 희망2022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대한유화(주) 하현수 총괄생산본부장(CSO),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 사랑의열매 박도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공헌 기금 20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당초 울산 사랑의열매가 세운 캠페인 목표액인 60억 3,800만 원 중 약 33%에 해당할 정도로 큰 액수다. 덕분에 전달식 당일 울산의 나눔온도는 100°C를 훌쩍 넘어 118.4°C를 기록했다. 울산의 희망2022나눔캠페인 최종 나눔 온도 130°C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됐다. 통 큰 기부 금액만큼이나 20여 년째 변치 않는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민 것도 주목할 점이다. 2002년 울산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이 97억 5,000만여 원에 달한다.



지난해 진행한 사회복지 단체 차량 전달식

##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의 참모습

대한유화(주)는 기술혁신과 고객 제일의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회사다. 최근에는 ESG 경영과 도전 정신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기탁한 성금 역시 이러한 대한유화(주)의 ESG 경영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햇빛

에너지 지원', 저소득 소방시설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한 소방용품 지원, 미혼모 시설 및 무료 급식소 복지 프로그램 및 안전 강화 기능 보강 지원,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 등으로 사용하며 울산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대한유화(주)에서 이번 캠페인에도 큰 나눔을 실천한 만큼 올해 지역사회의 복지 여건이 더 좋아지리라 기대한다.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대한유화(주) 하현수 총괄생산본부장(CSO)

일상속 기부를 실천한 이진숙·현송 기부자

# “원하는 하루를 보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매일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나눔을 매일 실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지난 희망2022나눔캠페인 기간에 경북 사랑의열매를 찾은 두 기부자는 작은 실천으로도 나눔을 이어갈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줬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13년째 기부금을 전하고 있는 현송 양(가운데)



남편과 함께 나눔리더에 가입한 이진숙(가운데) 기부자

도다. “힘든 환경에 처한 친구들이 따뜻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현송 양. 부모의 바람대로 따뜻한 심성을 지닌 기부자다.

## 항아리에 차곡차곡 모이는 하루의 성실함, 이진숙 기부자

어느 날 이진숙 씨는 ‘앞으로 무얼 하면서 살고 싶은가’와 ‘어떤 사람으로 늙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하루를 성실히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만의 나눔 방식을 고안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한 후 그것을 마칠 때마다 1,000원을 항아리에 넣는 것. 1시간 책 읽기, 2시간 글쓰기, 1시간 걷기(남편과 함께 걸으면 2,000원), 30분 요가하기, 30분 필사하기를 마칠 때마다 항아리에 1,000원짜리 지폐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진숙 씨는 항아리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경북 사랑의열매에 성금으로 기탁하며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며 “누군가에게 친절했을 때와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1,000원을 넣는다면, 감사할 줄 아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매일 내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의 힘은 생각보다 큼니다. 원하는 하루를 보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꾸준히 하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고요.”

- 경북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이진숙

## 매년 자신의 생일에 기부금을 전하는, 현송 기부자

현송 양은 자신의 생일이 있는 12월이 되면 1년간 살뜰하게 모은 저금통을 들고 경북 사랑의열매를 방문한다. 고사리손으로 기부금을 전한 지 벌써 13년이 된 베테랑 기부자다. 현송 양이 처음 경북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09년이었다. 부모는 현송 양이 따뜻한 심성을 갖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첫 번째 생일에 맞춰 100만 원을 기부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우리 아기 첫 캠페인’에 경북에서 두 번째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시작한 기부는 어엿한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현송 양의 개인 기부액은 총 144만 7,600원이며, 부모의 기부금까지 포함한다면 누적 기부액은 총 1,206만 1,120원에 달할 정

3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임직원과 기업이 함께 상생의 가치 실현

## 아름다운 기업 문화의 선두 주자, 네패스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백엔드 파운드리 전문기업 네패스. 삼성전자, 인텔 등과 함께 '핵심 제조 기술을 가진 반도체 기업 10곳'에 선정될 만큼 독보적 첨단 패키징 기술력을 갖춘 국내 최고 기업으로 꼽힌다. 기술력만큼 유명한 게 또 있다. 바로 임직원과 기업이 상호 공감하며 펼치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충북 사랑의열매, 네패스



— (왼쪽부터) 사회 공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 중인 PKG 설비기술팀 윤한걸 스타, 반도체 사업부 김남철 사장, 기업문화센터 공감팀 임예원 스타

### 나눔은 경영의 중요한 덕목

네패스 이병구 회장은 “감사와 봉사는 기업의 성장 에너지였다”고 말할 정도로 나눔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네패스의 사회 공헌 활동은 단순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눔과 베품을 통한 상생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나아가 업계와 상생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

업과 임직원이 이런 비전을 공유하며 ‘네패스만의 나눔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2배 더 나누는 n나눔씨앗

네패스는 지난 2009년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n나눔씨앗’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n나눔씨앗이란 네패스(nepes)의 n과 나눔의 시작이 된다는 의미를 더한 것으로, 임직원이 기부한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펀드다. 모은 금액의 2배를 기부할 수 있어 더 많은 곳에, 많은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매월 모금액과 기부처를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도 큰 강점이다. 덕분에 전체 임직원의 약 60%가 참여할 정도로 n나눔씨앗은 네패스의 가장 대표적 나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과 임직원들은 뜻을 모아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네패스 × 충북 사랑의열매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네패스는 n나눔씨앗 기금으로 충북 사랑의열매와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

#### 장학금 사업

지난해 10월 네패스의 31번째 창립 기념일을 맞아 3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총 1,550만 원을 전달했다. 창립 기념일 연수와 동일한 인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네패스만의 특별한 연례행사다. 현재까지 496명의 학생에게 2억 4,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학생들이 현실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 1 저소득 어린이에게 전달할 어린이날 선물 키트를 만든 임직원들
- 2 구내식당에서 매년 담그는 이웃을 위한 김장 김치
- 3 어르신을 위한 특별식 키트를 포장하는 모습

### 정서적 안정을 돕는 아동가족상담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정서적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기가 어렵다. 상담소를 찾기에 상담료가 비싸고, 무료나 저비용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이에 네패스는 아동과 양육자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아동가족상담실을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여 가정의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큰 발걸음

2021년 11월 네패스는 일상 속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직원이 출퇴근이나 캠퍼스 산책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발걸음을 모아 800만 보를 달성할 경우 회사에서 난방이 취약한 과산 지역 홀몸 어르신에게 전기매트를 지원하기로 한 것. 직원 163명이 참여해 총 1,060만 1,828걸음이 쌓였고, 약속대로 전기매트 150장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 신속한 지원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병으로 전국이 위기를 겪은 2020년, 네패스는 긴급회의를 거쳐 신속한 지원을 결정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다.

### 이웃의 김장 김치는 우리 손으로

월동기가 되면 네패스의 임직원은 매년 이웃을 위해 김장 김치를 담근다. 지난해에는 특별히 과산 청안면에서 재배한 배추와 고춧가루를 사용해 우리 농가에 큰 힘을 전했다.

### 나누기에 더 풍성한 명절

매년 설날, 어버이날, 추석을 앞두고 네패스 임직원은 사업장 인근 지역 내 인가구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

비한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식 키트를 손수 만드는 것.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직접 배달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





# “지역사회에 행복 에너지 채웁니다”

충남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JB주식회사와 (주)미래엔서해에너지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충남 사랑의열매의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나란히 성금을 전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했다. 클 이션희 사진 충남 사랑의열매



1

### 구석구석 관심을 기울이며 폭넓은 지원, JB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소재한 기업으로 충남 도내 9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약 51만 8,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JB

주식회사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6억 원 이상의 성금을 기탁하며 충남 사랑의 열매와 나눔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저소득 가정의 난방비 및 난방유를 지원해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가스로 전환이 필요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도시가스 설치를 지원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밀반찬 배달 및 의료 동행 서비스를 위한 차량 구입,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폭넓은 지원을 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1 밀반찬 배달 및 의료 동행 서비스를 위해 차량을 지원한 JB주식회사  
2, 3 (주)미래엔서해에너지 임직원들이 취약 계층에 연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배달 봉사까지 진행했다.

###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환경 구축 (주)미래엔서해에너지

충남 당진 시곡동에 위치한 (주)미래엔서해에너지는 충남 도내 5개 시군(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약 18만 5,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충남 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14억 원 이상의 성금을 기탁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스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가스 타이머쿱 지원 등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구축하도록 매년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한다. 또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해 에너지 절약과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 취약 계층에 연탄을 지원하며 난방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직원이 직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연탄을 배달하며 가스 시설 안전 점검 및 노후 가스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을 펼치는 등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3

평생 나눔을 실천한 오봉산 산신암 김향란 주지

# “어려웠던 시절, 받은 도움의 10배 이상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세종시 조치원 오봉산에 위치한 한국불교태고종 산신암 주지, 세종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등 김향란 주지를 설명하는 수식은 정말 많다. 그중에서도 고르고 골라 그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평생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다.

글 이선희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1 조치원읍 대동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한 모습  
2 2017년 수상한 '사랑의열매 대상' 기부분야 대상 상패와 나눔리더 인증패를 품에 안은 김향란 주지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나눔'**  
세종시에 김향란 주지보다 더 큰 금액을 기부하며, 더 오랜 기간 기부금을 전달한 부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세종시에서 그만큼 '틈만 나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고. 여름이면 폭폭 찌는 더위에, 겨울이면 살을 에는 추위에 고생하고 있을 이웃들이 눈에 밝혀서 나눔에 나선다. 명절이라서, 새해라서 기부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눈에 밝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이 걱정되어 봉사 활동을 하는 등 매년·매월·매 분기 그의 나눔은 심이 없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베푼 나눔을 헤아려보자면 세종 사랑의열매에만 총 113회에 이른다. 누적 기부액은 9,552만 5,000원(현금 8,700만 원, 현물 820여만 원

상당)으로 2017년에는 '사랑의열매 대상' 기부분야 대상, 2019년 세종시 나눔리더 9호 등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지난해에는 세종사회복지협의회 추천으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많은 축하인사를 받았지만, 김향란 주지는 “훌륭한 분이 많은데, 제가 받아서 죄송하다”며 자신을 낮췄다. 아낌없이

기부금을 전하면서도 스스로는 검소하게 생활하며, 편안하고 이기적인 삶은 지양한다. 나보다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 그에게도 가난해서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밀가루 배급을 받으며 그는 '내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꼭 사회에 10배 이상 갚겠다'고 결심했다. 김향란 주지는 평생 그 다짐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만큼은 변치않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나눔을 실천하리라는 확신이 든다. ♣

— 세종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대전 서구 이웃 나눔 사업

## 우리 모두의 해피투게더를 위해 '투게더 서구'

대전 서구는 '행복동행 서구'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소외된 이웃 없이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석구석 돌보고, 희망을 전하며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서구를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대전사랑의열매

### 대전 서구만의 나눔문화 프로그램 투게더 서구 희망나눔운동

2015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투게더 서구 희망나눔운동. 일시적 기부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나눔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자 도입했다. 서구청 직원과 서구민을 대상으로 매달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정기 후원을 신청받고 있다. 이렇게 모은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소중히 쓰고 있다. 2020년에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가구 행복동행 사업을 실시해 긴급 생활비와 체온계 등을 지원했다.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맞는 특화 사업을 구상하며 투게더 서구 희망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우리동네 자원나눔운동

서구 2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 모금 계좌를 운영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 자원 발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많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덕분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자원나눔운동'

###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하는 고독사 공영장례 지원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대전 서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지켜드림, 안아드림, 돌봐드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독사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관내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 민·관·학이 협력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히 보내드리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9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걱정과 근심은 이제 그만, 메리츠화재와 함께하는 서구 걱정해결 사업

대전 서구는 2014년부터 매년 메리츠화재와 업무 협약을 통해 걱정해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계비, 의료비 등 시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관내 960세대에 4억 원을 지원해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

3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전북 사랑의열매, '2021 전북을 이끄는 나눔리더 100인 캠페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맞춤 지원

# “아이들 꿈에 투자하는 일,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죠!”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도록 전북 사랑의열매가 나섰다. 개인별 재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를 위해 전북의 나눔리더들도 힘을 보탰다.

글강은진 사진 이승재, 전북 사랑의열매



— 지난해 개최한 제51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채영 학생(왼쪽 첫 번째)

## 내 꿈은 올림픽 금메달!

아이들 꿈을 응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꿈을 이룬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본다면 또 얼마나 가슴 벅찰까. 이채영 학생을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었다. 유도 명문 고창 영선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채영 학생은 전북 사랑의열매 꿈성장 지원 사업에 선발된 유도 유망주다. 작년 겨울 제51회 전국소년체전대회 유도 70kg급에 출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같이 생활하는 언니와 오빠들을 따라 유도 학원에 다니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영선중학교 유도부에 스카우트됐다. “힘든 운동을 하고 나면 해냈다는 쾌감을 느껴요. 기분도 좋고요. 그래도 무조건 이길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웃음)” 유도가 언제 제일 좋은지 묻는 질문에 ‘이길 때’라고 답하며 환하게 웃는 이채영 학생을 보니 영락없는 선수다. 선수 이채영 학생의 꿈은 당연히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는 거다. 그때까지 이채영 학생은 걱정 없이 운동만 할 수 있을까. 현재 이채영 학생에게는 익산에서 고창의 학교로 진학하면서 발생하는 일체의 교통비와 식비, 운동복 및 각종 운동용품 구입비 등 경제적인 걱정 없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꿈성장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재능과 적성 발굴에 초점**

한국 미래 세대 꿈 실태 조사(2017)에 따르면 위기 가정 아동들이 현실 앞에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비율이 무려 45.1%에 이른다고 한다. 또 전북연구원의 전북 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보고(전북개발원)를 보면 적성을 모르거나(29.6%), 관련 직종 경험 부족(19.8%), 취업 정보 부족(16%), 학력·기술 부족(16%) 순으로 드러나 취업 지원 역시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조

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전북 사랑의열매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집중형 꿈성장 지원' 사업에 나섰다. 현실 앞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개인별 재능과 적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응원에 나선 것.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전북아동복지협회와 지역 아동센터 전북지원단에 각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전북아동복지협회는 생활시설 아이들의 교육 훈련비, 대회 참가비, 자격·기술 취득비, 물품 구입비 등을 개인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



“도내 아이들의 꿈에 투자할 나눔리더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 나눔리더들이기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전북 사랑의열매

- 1 산업 디자이너를 꿈꾸는 정읍중학교 이하은 학생은 꿈성장 지원 사업에 선발. 마음껏 미술을 공부하고 있다.
- 2 2021 나눔리더 전북 1호로 가입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 3 언론사 1호로 가입한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

하고,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을 통해서 1,000만 원 이내로 지역아동센터 별 프로그램 강사비, 대회 참가비, 악기 구입비 등을 지원해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다.

**나눔으로 응원 나선 나눔리더 100인**  
전북 사랑의열매가 아동·청소년 맞춤형 집중형 꿈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숨은 주인공들은 따로 있다. 바로 117명의 전

북 나눔리더다. 지난해 5월, 전북 사랑의열매는 도내 아이들의 꿈에 투자해줄 나눔리더 100인 모집에 나섰고, 당초 목표보다 많은 117명의 나눔리더가 신규로 가입하며 나눔으로써 응원한 것.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 나눔리더에게는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만큼 값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산업 디자이너를 꿈꾸는 아이, 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는 학생까지 전북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선발된 6명의 학생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는 올림픽 유도 금메달을 꿈꾸는 이채영 학생도 있다. 아이들의 꿈에 투자하는 일, 그 결실을 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계속 응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기 때문일 것이다. 🍀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주거 공간 지원하는 전남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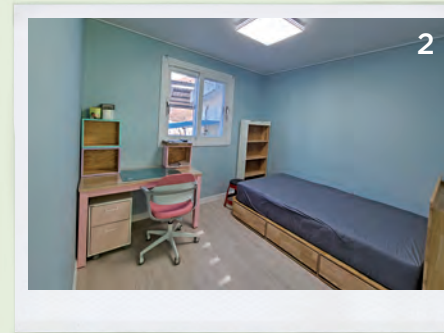
# “가족의 희망을 지어드립니다”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주택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에 안전한 내일을 선물하는 방법. 바로 주택신축매칭그랜트 지원 사업 '희망을 짓다'를 통해서 가능하다.

글 강은진 사진 전남 사랑의열매



— (왼쪽부터) 국제로타리 3610지구 우광일 전 총재(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국제로타리 3610지구 문성필 총재,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국 사무처장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 도움의 손길이 모여 완공할 수 있던 A 씨 집의 신축 공사 모습  
2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아이들의 방

## 희망으로 지은 집

전남 광양시 다압면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가장 A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이제 생후 1개월도 안 된 갓난아기와 아홉 살 된 큰아이를 100년도 더 된 노후 주택에서 외국인 아내와 키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흙벽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았다. 재래식 부엌이며 화장실까지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 붕괴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A 씨 가족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A 씨 부부의 소원은 단 하나. 아이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계유지도 어려울 만큼 형편이 좋지 않은 A 씨 부부에게는 언감생심 바라기도 힘든 너무 큰 꿈이었다. 이런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내일을 선물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전남 사랑의열매의 주택신축매칭그랜트 지원 사업 '희망을 짓다'다. 지역사회 자원 매칭 지원을 통해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낡은 집을 신축해 안락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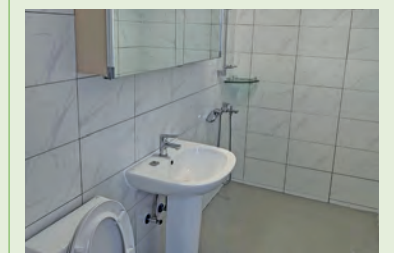
## 8년간 약 80가구 지원해

전남 사랑의열매는 주택신축매칭그랜트 지원 사업을 통해 광양시에 살고 있는 A 씨 부부에게 신축 주택을 지원했다. 전남 사랑의열매가 2,500만 원, 동광양 로타리클럽 2,500만 원과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우광일 국제로타리 3610지구 전(前) 총재 2,000만 원 등 뜻깊은 성금이 더해져 따뜻한 보금자리가 완공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14일, 드디어 A 씨 가족이 새 집에 입주했다. 이날 가족의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국 사무처장, 이기섭 다압면장, 동광양 로타리클럽 박진수 회장, 국제로타리 3610지구 우광일 전(前) 총재, 국제로타리 3610지구 문성필 총재, 광양시가족센터 순경화 센터장 및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제 A 씨 가족은 안락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됐다. 한편, 2014년부터 시작한 주택신축매칭그랜트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8년간 광양시 2세대, 전라남도 77세대를 지원했다. 🍀

before



after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주 사랑의열매

# 스스로 지키는 3년의 챌린지 '희망스케치'

유예기간 없는 시설 퇴소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제주 사랑의열매가 나선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립을 돕기로 한 것.

글 강은진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 안전한 홀로서기 돕기

제주 사랑의열매가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바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스스로 챌린지 '희망스케치'를 통해서다. 보호종료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 때문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아동 양육 시설에서 생활해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법적 어른으로 분류하는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독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정부의 자립 정착금 약 500만 원만 가지고 말이다. 공식적인 보호 체계가 사라진 아이들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같은 또래 청소년에 비해 사회 기술이나 대인 관계에 서툰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거나, 신변에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 술한 위기를 맞으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시설 퇴소 후 안전한 독립과 함께 건강하게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는 탓이다. 제주 사랑의열매가 기획 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선 배경이다.



1



2

## 중장기 계획으로 부적응 문제 해결

제주 사랑의열매는 무엇보다 보호종료아동의 주도적 자립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심리 치료 및 관계 증진의 정서적 회복과 자립 기술 역량을 강화해 진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 체험과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입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또 3년이라는 사업 기간도 돋보인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2024년 11월에 종료하는 이번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해 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스스로 챌린지 '희망스케치'를 통해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참여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으로 주도적 자기 관리뿐 아니라 도전을 통한 긍정적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건강하게 독립하길 기대한다. 정보 교류 및 자립을 위한 공동체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제주 사랑의열매는 스스로 챌린지 '희망스케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안전한 홀로서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1 스스로 챌린지에서 제공하는 다이어리. 3년 계획으로 진행돼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 2 직접 미래를 계획해볼 수 있는 '희망스케치'
- 3 직업 체험 중인 보호종료아동



3



광주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100호 회원, 선진건설 박기창 대표

# “10년 모은 국민연금으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박기창 대표는 10년간 모은 국민연금을 이웃을 위해  
흔쾌히 기부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게다가 아너 소사이어티 100호 회원이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져 의미가 배가됐다. 글강은진 사진광주 사랑의열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의 권유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선진건설 박기창 대표



—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아너 소사이어티 완납 회원  
핸드 프린팅 행사에 참석한 박기창 대표(왼쪽 두 번째)

“10년 모은 국민연금,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 기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 선진건설 박기창 대표

### 영광스러운 100호 회원

지난해 12월 20일, 광주 사랑의열매 나눔문화관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나눔을 이끄는 회원들의 손을 기념하기 위한 ‘2021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완납 회원 핸드 프린팅’이다. 이날은 약정 성금 1억 원을 완납한 이숙희, 김성진, 김갑주, 김상철, 김지현, 박기창, 김승희, 이영웅, 우명희, 정보경, 송영한, 문지훈, 조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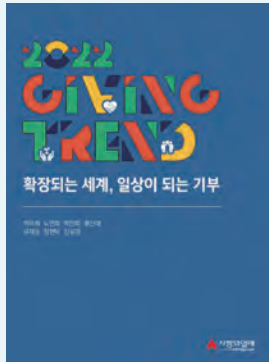
윤 총 13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 선진건설 박기창 대표도 있었다. 바로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00호 회원이라는 의미 있는 타이틀의 주인공이다. 박기창 대표는 2019년 12월 ‘아너 소사이어티 송년의 밤’ 행사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에게 기부를 권유한 건 평소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던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이었다. 박기창 대표는 망설임 없이 나눔에 동참했다.

### 10년 모은 연금 쾌척, 감동 더해

모든 나눔은 소중하고, 모든 기부는 특별하다. 그럼에도 박기창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에 모두가 놀라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가 매달 80만 원씩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국민연금을 이웃을 위해 쾌척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기부를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성실하게 모으다보니 상당한 액수가 되었고, 박기창 대표는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박기창 대표는 “오랫동안 모아온 국민연금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히며, “특히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00호 회원이라는 뜻깊은 타이틀까지 얻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박기창 대표는 앞으로도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선진건설은 전남 담양에 본사를 둔 토목건축 공사 전문 기업이다. 🍀

2022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 확장되는 세계, 일상이 되는 기부



지난 2월 8일 '확장되는 세계, 일상이 되는 기부'라는 주제로 2022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2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영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총 4명의 연사가 주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참고 자료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2022 기부 트렌드: 확장되는 세계, 일상이 되는 기부\*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연구위원,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사회를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영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연희 교수,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

### 기부자가 만드는 기부, 그리고 문화

첫 번째로 '기부자가 만드는 기부, 그리고 문화- 청년세대가 이끌고 기성세대가 받쳐주다'라는 주제로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20~30대 기부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관찰하며 "청년 기부자들에게 기부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기부 방식과 생각, 모금 기관에 원하는 것 등을 말했다. 청년 기부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어 하는 임팩트 세대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며 '한국에 임팩트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 갈림길에 선 ESG 시대의 기업 사회 공헌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가 'ESG 시대의 기업 사회 공헌, 갈림길에 서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연사로 나섰다. ESG와 사회 공헌을 모두 접해본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2022년 트렌드를 도출해냈다. 박 대표는 기업이 CSV(공유 가치 창출)를 다시 고민하고 있으며, 일과 무관한 사회 공헌 활동이 줄어들고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활동으로 바꾸는 방식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한 최근 중요한 어젠다로 떠오른 저탄소 사회 공헌, ESG 활동을 하는 척하는 'ESG 워싱'에 대한 우려 등 2022년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했다.

### 다양한 생존의 길에 들어선 디지털 모금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연희 교수가 모금 실무자 17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영리 모금 단체들의 모금 이슈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금 방식은 디지털 채널 쪽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모금 콘텐츠는 명확한 변화와 성과를 보여주거나 유명인과의 협업을 강조하는 콘텐츠, 환경 및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콘텐츠 등 디지털 매체에 걸맞게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모금 현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모금 단체의 전략적 변화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가 모금 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적 변화의 트렌드를 발표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단체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며 그들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여덟 가지 특징을 키워드별로 소개했다. 신뢰를 더한 전문인 자원봉사, 사업 전문성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를 촉구하는 애드보커시, 다양한 현장 이야기와 스토리 편집 능력, ESG 흐름을 읽은 사회 공헌 파트너십, 멀티플렉스형 나눔 플랫폼 기능의 리사이클링 숍, 차별화한 브랜드 특성과 이를 잘 보여주는 영상 파워, 고액 모금과 유산 기부를 꼽았다. 🍀



착한가게로 떠나는 맛있는 여행

# 이웃들이 인정하는 인천 맛집

모든 손님이 내 이웃이다.  
한 동네, 한 골목에서 매일 마주친다.  
그렇기에 진짜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  
정직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말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맛집,  
바로 인천의 착한가게들이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 맛있는 빵의 향연이 펼쳐지는 케익하우스델리

📍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280 알파프라자 ☎ 032-468-2621  
🕒 월~토요일 오전 7시~밤 12시, 일요일 오전 8시~밤 12시

별점 5개 만점 후기가 쏟아지는 집이다. 맛있다, 가성비가 좋다, 종류가 많다, 친절하다 등등 칭찬 이유도 다양한 데다 저마다 추천하는 시그너처 빵도 다 다르다. 그야말로 맛있는 빵 천국인 셈! 먼저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된 팔빵이 유명하다. 남다른 반죽의 부드러운 결이 느껴지는 빵에 팔 본연의 적절한 단맛을 끌어올린 소가 조화롭다. 게다가 단돈 1,000원이라는 가격까지 완벽하다. 단호박이 촘촘하게 박힌 단호박 카스텔라와 앙버터, 무화과통밀빵과 맘모스빵까지 인기 빵이 즐비하다. 기본에 충실한 크로켓도 명성이 높다. 또 천연종과 자연 발효로 만든 건강 빵도 유명하다. 설탕과 버터를 최소화해 다이어터도 안심하고 먹는다. 신선한 샌드위치는

점심시간이면 금세 동이 난다. 무엇보다 케익하우스델리의 자신감은 제빵실 공개다. 카운터 벽에는 빵을 굽는 제빵실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더욱 신뢰하는 이유다. 모양도 맛도 가격도 종류도 모두 착하기만 한 케익하우스 델리. 다양하고 맛있는 빵의 향연을 즐기러 발걸음해보자.



## 제대된 한상 차림을 만나는 신두리숯불갈비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256 ☎ 032-467-1612  
🕒 매일 오전 11시~오후 10시



굽는 갈비 맛은 이미 정평이나 있다. 상을 장식하는 밑반찬은 화려하며 정갈하다. 샐러드와 장아찌, 잡채와 단호박 등 여느 한정식 못지않게 정성스럽다. 게다가 고기에 곁들이면 좋은 냉면부터 식사류의 곤드레밥, 시래기된장국, 낙지볶음 등 모든 메뉴가 맛갈스럽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착한가게에 가입해 나눔을 시작한 송정아 대표의 넓은 품이 만들어낸 신두리 밥상이다. 제대로 된 한상을 경험하고 싶다면 신두리숯불갈비로 가자.



손님의 70% 이상이 오랜 단골이다. 임신 때 처음 온 손님이 이제는 초등학생 아이와 같이 온다. 명절 전후에는 신두리숯불갈비 송정아 대표가 오랜 단골손님의 아이에게 흔쾌히 세뱃돈을 줄 정도다. 그렇기에 송정아 대표의 음식에서만큼은 아주 엄격하다.

그야말로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재료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는다. 단골들이 보증하는 맛과 품질이다. 규모가 큰 기업형 외식업체지만 소양념갈비부터 돼지왕갈비까지 1인분 짝 채운 300g 고기가 든든하다. 깨끗하게 관리한 숯불에

##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노포의 맛 정가네할머니손두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115번길 22 ☎ 032-432-3517  
🕒 월·화·목·금·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9시  
30분, 수·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인천시청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로컬 맛집이다. 30년 넘게 가마솥에 직접 끓여 두부를 만들어왔다. 백령도 콩으로 만든 두부는 부드럽고 고소하다. 내공이 느껴지는 진한 맛이랄까. 메뉴는 일품 두부를 중심으로 두부보쌈, 두부김치에 순두부, 두부부침 등이 있다. 굴전이니 가지마구이 등 인천 로컬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메뉴도 입맛을 돋운다. 특히 상차림에 기분으로 나오는 달걀옷 입힌 두부부침은 메인 요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엔 충분하다. 다른 밑반찬도 집에서 만든 것처럼 정겹다. 정가네할머니손두부의 대표 메뉴 두부보쌈은 직접 만든 두부와 잘 삶은 고기도 훌륭하지만, 김치가 정말 일품이다. 시원한 굴이 듬뿍 들어 있기 때문이다. 두부보쌈을 주문하면 기분으로 나오는 순두부찌개도 자극적이지 않고 맛이 깔끔하다. 무엇보다 착한가게로 나눔에 동참함은 물론, 2014년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은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봉사도 이어오고 있어 맛에 감동까지 더한다. 진짜 노포의 포스란 이런 것이 아닐까. 🍀



아이 첫돌부터 10년간 생일 기부 약속한  
이지원·고가솔 부부

# “설이에게 나눔은 당연한 것이길 바라요!”

보령시청에서 있었던 이설 어린이 가족의 두 번째 기부금 전달식 기념사진. (왼쪽부터) 아빠 이지원, 이설, 엄마 고가솔, 김동일 보령시장



벌써 두 번째 기부다. 첫 기부 때 노리개젓꼭지를 물고 있던 설이가 부쩍 컸다.  
내년엔 설이가 직접 기부 기념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벌써부터 다음 기부 때 설이의 모습이 기대된다. 글강은진 사진사랑의열매, 기부가족제공

### 조금 특별한 10년의 약속

생일마다 이웃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는 아이가 있다. 노리개젓꼭지를 물고 엄마 품에 안겨 기념사진을 찍던 아이는 매해 쌓여가는 기부 금액만큼이나 쑥쑥 자라 언젠가는 직접 기부금 전달식 기념 팻말을 들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을 것이다. 따뜻한 동화वाद 같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올해 세 살이 된 이설 어린이다. 충남 보령시에 살고 있는 이지원·고가솔 부부는 딸 설이의 첫돌부터 10년간 생일 기부를 약속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부를 이어갔다. 이 특별한 기부를 먼저 제안한 건 엄마 고가솔 씨였다.

“아이를 낳았을 무렵, 아동 학대 사건이나 베이비박스에 대해 접하게 됐어요. 엄마가 되니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와 미혼모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또 설이가 크면 기부뿐 아니라 봉사도 같이 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어요.”  
고가솔 씨는 특히 기부 경험이 없던 남편이 흔쾌히 동의해줘 고마웠다고. 기부 후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누구보다 기뻐하던 남편의 반응을 전해주면서 말이다.

### 설이가 직접 기부할 어느 날

부부는 모두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이다. 그래서일까? 고가솔 씨는 무엇보다 아이의 용돈 관리나 저축 등 경제관념을 잡아주면서, 기부 또한 그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가르치고 싶었다는 바람을 비쳤다.

“아이의 용돈 관리에 관해 조언하는 책을 읽었는데, 자연스럽게 기부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설이 역시 기부를 ‘이걸 왜 해?’가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어요.”

고가솔 씨는 자신들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부담도 느꼈다. 그저 작은 기부일 뿐이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기부도 있다는 것을 다른 부모들도 나누고 싶어 용기를 냈단다. 저축의 1%나 0.5%라도, 장난감 하나 사주는 금액이라도 기부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면, 은행원이어서 그럴까, 기부에 대한 조언도 남다르다.

“친할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어려서부터 교훈적인 얘길 많이 들었어요.(웃음) 친정 부모님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하셨고요. 아마 그런 환경이 제게 나눔의 개념으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설이도 크면 언젠가 스스로 직접 기부할 날이 오겠죠?”

설이의 기부, 그날이 바로 이지원·고가솔 부부가 시작한 이 예쁜 이야기의 해피엔딩이 아닐까. ♡

## “설이가 더 크면 같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엄마 고가솔 씨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가운데)이 '우리동네 좋은 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우리'의 특별한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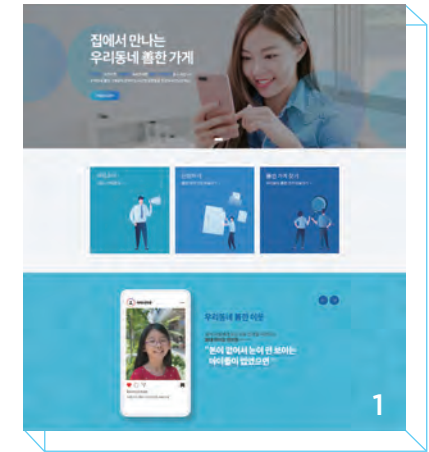
##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은 2021년부터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특별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교육·환경·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글 강보라 사진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1호 기부자는 우리금융그룹이었다.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온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지난해 대비 40억 원 증액한 70억 원의 기부를 결정했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1호 기부 소식이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기업과 개인 후원자가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사랑의 손길을 더하는 든든한 나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착한 금융, 우리 동네 히어로를 지키다

복지센터에 무료 나눔을 하는 서울 대림동 '빵에 빠지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료 세탁 봉사를 하는 서울 방화동의 '미르세탁소', 장애 아동 무료 교육으로 알려진 경기 덕은동 '아테네스포츠클' 등 일상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우리금융그룹은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 이웃을 지키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위해 '우리동네 좋은 가게' 사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 기부,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소상공인을 돕기로 한 것이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우리 동네 좋은 가게 1기, 2기를 통해 선한 가게 200곳을 선발해 긴급 생활자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선한 가게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 긴급 생활자금 지원, ●우리은행 영업점을 활용한 가게별 맞춤형 디지털 포스터 홍보,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앱 'WON뱅킹'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금융그룹은 이 밖에도 본점 인근 식당 선결제 캠페인 '본점 인근 식당 살리기'를 시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착한 소비 운동'을 선제적으로 펼



1 '우리동네 좋은 가게' 홈페이지(www.woorigoodstore.com)를 통해 선한 가게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2 나눔, 기부, 봉사 활동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을 선발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쳤으며, 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30%(최대 월 100만 원)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 미래 IT 전문가, 우리가 함께 키웁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IT 전문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시점이다. 우리금융그룹은 미래 인재 육성, 정보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우리금융그룹의 대표적 미래 세대 육성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높은 사교육비로 디지털·IT 기술 습득 및 진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15명의 디지털 인재를 배출했으며, 현재 150명의 3기 학생이 디지털·IT 교육 수강 중이다. 디지털 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문화고등학교 IoT학과 김찬현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디지털·IT 분야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밝히며 "꿈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감사



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 IT 전문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직원들이 참여해 멘토와 멘티로 만나는 온라인 멘토링도 진행했다. 현업 실무자들이 직접 금융 보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첨단 분야에 대한 진로와 전망을 안내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우리 속의 세계, 다문화가족을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12년 200억 원을 출연해 금융권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익 재단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결혼 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



“우리금융그룹은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나갑니다.”

내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문화·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우리다문화 어린이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를 선발해 합창 교육과 전문 음악교육을 시행하며 공연과 대회 참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을 지원한다. 재단의 대학 장학생들로 이뤄진 '우리누리' 서포터즈 역시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을 위한 팀 프로젝트 활동과 봉사 활동, 다양한 강의와 토론에 참여하며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도 지원한다. 2021년에는 10커플을 선정해 결혼식과 웨딩 촬영은 물론, 신혼여행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 생명의 숲에서 미래 환경을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지원은 동시대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리금융 생명의 숲'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해 녹색 심터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 현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지원 사업이다. 제2의 교육 환경이자 휴식을 책임지는 숲의 중요성을 인지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지역 인흥초등학교 내 1호 숲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성 어울초등학교 2호 숲에 이어 진명여자고등학교에 3호 숲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그룹은 총 1만353㎡ 면적에 교목 194주, 관목 6,836본, 초화류 9,043본을 식재해 학생들의 녹색 심터와 야외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환경

1 '우리웨딩데이' 지원으로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다문화 커플 모습 2 미래 IT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2기 수료식 모습 3 '우리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은 합창과 전문 음악 교육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4 '우리금융 생명의 숲' 3호 숲으로 선정된 진명여고의 준공식 기념 촬영 모습



을 우선 생각하는 우리금융그룹의 지원이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 힐링을 선물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밝은 내일은 우리금융그룹의 착한 금융에서 시작된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서울 351호



**박장선 (주)투데이아트 회장**  
“나눔은 배려입니다.”

서울 352호



**한효주 배우**  
“아너 소사이어티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서울 353호



**조길우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惜福謙恭(석복겸공), 나눔은 후대를 위해 복을 짓는 것입니다.”

서울 354호



**이재용**  
“나눔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산 249



**원창선 (주)양지건설 회장**  
“시련을 이겨내면 생각지도 못한 나눔(기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구 195호



**이봉원 (유)성암엘에프 대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사회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후원학 삼성화재 사장, 남궁훈 카카오투니티비센터 센터장 **충북** 박경춘 **경북** 박정자

대구 196호



**이창원 거림테크(주) 대표**  
“저의 나눔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힘과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대구 197호



**김창연 (주)동현메탈 대표이사**  
“사회적 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광주 134호



**이수영 가평의료재단 이사장**  
“광주시민의 의료와 복지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싶습니다.”

대전 97호



**유동현 오성철강(주) 대표**  
“나눔은 더 많은 이웃과 함께 기회와 행복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경기 281호



**손경희 (주)서호에코탑 대표이사**  
“혼자보다 더불어 함께할 때 아름다운 사람, 행복 공동체의 실현을 꿈꾸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전북 80호



**홍혜정**  
“저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북 81호



**박영숙**  
“나눔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과 위로 그리고 기쁨을 주는 행복한 일입니다.”

전북 82호



**박지원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 변호사**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전남 132호



**이승준 (유)제일환경 대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따뜻한 정이라 생각합니다. 내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습니다.”

경북 137호



**전기웅 (주)경북기업 대표**  
“아너 회원으로서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이윤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시작**

사랑의열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100억 원으로 조성한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12호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으로 운영한다. 차별 없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목표로, 배경이 다양한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교육 소셜 벤처 사단법인 점프와 함께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연도인 올해 장학생 300명에게 20억 원의 학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1,5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하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외식업주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다.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선발한 장학생 중 고등학생에게 연간 300만 원, 대학생에게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비를 부담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 지원비 200만 원을 추가해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 남보라와 (주)나우쿠킹, 요리책 900권 나눔**

배우 남보라와 (주)나우쿠킹(대표 이난우)이 맛있는 집밥 이야기를 담은 <나누면 따뜻한 집밥> 900권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이난우 대표가 오랫동안 이어오던 보육원 봉사 활동에 남보라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이 함께 출간한 요리책이다. 책에는 두 사람이 보육원 봉사 활동에서 선보인 요리를 비롯해 본인들이 평소 즐겨 하던 음식의 상세한 레시피를 담았다.



**동국제약, 센시아와 함께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대표이사 오흥주)이 서울 사랑의열매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과 함께 '센시아와 함께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3월 6일까지 워크온 앱을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저소득층 하지정맥류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정맥 순환 장애를 예방·관리하는 데 좋은 습관인 걷기를 통해 기부자의 건강을 챙기고, 질환 예방 메시지도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SK하이닉스(주) 임직원, 행복나눔기금 성금 21억 원 전달**

SK하이닉스(주)(대표 이석희) 임직원이 사랑의열매에 성금 21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회사와 임직원이 2011년부터 함께 조성해 온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마련했으며, 이번 기부를 더해 현재까지 누적 기부 금액은 약 275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은 아동·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 노인 심리 정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후속 지원 성과 공유회 개최**

사랑의열매는 2019년부터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며, 2인 이상의 미של림 팀부터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단체를 지원해왔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는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2기에 참여해 우수한 평가를 거두며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을 받은 '코벨소랩'과 '마인드풀가드너스가' 참석해 활동 성과 발표와 프로그램 시연 등을 실시했다.



**사회복지 기관 45개소에 2022년 신청 사업 배분금 전달**

부산 사랑의열매가 부산 지역 사회복지 기관 45개소에 복지사업비 12억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 수행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배분금은 야간방임 아동·청소년 돌봄과 학대 고위험 가정의 학대 예방 방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나눔명문기업 가입**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 사장 노삼석)(이하 HJNC)이 성금 1억 원을 기부하며 부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일상 회복,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교육 및 자립 강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HJNC는 2021년 10월 항만업계 최초로 노사 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



**정화실업(주), 목도리 3만 장 기부로 온정 나눔**  
 며플러 전문 생산 기업 정화실업(주)(대표이사 이인호)이 대구 사랑의열매에 자체 판매하는 겨울 목도리 3만 장을 기탁했다. 정화실업(주)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물품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제품에 사랑의열매를 부착하고 수익에 비례해 현물을 기부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히 기부에 앞장서고 있으며, 총기부액은 11억여 원에 달한다.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 14억 8,000여만 원 쾌척**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회장 김상태)(이하 협의회)가 대구 사랑의열매에 성금 14억 8,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상태 회장은 “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나눔 참여로 모두가 미소 짓는 대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사)한국생활폐기물중양회 인천광역시회, 성금 기탁**  
 지난 1월 26일 (사)한국생활폐기물중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조원철)가 인천 사랑의열매에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2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성금은 인천 지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원철 회장은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성금을 마련했다”며 “저희의 온정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캔지(주), 다문화 학교에 향균 시트 지원**  
 구리를 적용한 향균 기술로 멀티케이스와 가구 등을 만드는 위캔지(주)(대표 김성배)가 인천 사랑의열매에 4,900만 원 상당의 향균 시트 158개를 전달했다. 향균 시트는 관내 다문화 학교 세 곳의 교실 책상과 급식소 등에 설치해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돕는다. 김성배 대표는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광주



**광주 유은재 학생, 광주 최연소 나눔리더**  
 광주고등학교 2학년 유은재 학생이 광주 사랑의열매 12호 나눔리더로 가입하며, 2022년 첫 번째 나눔리더이자 광주 최연소 나눔리더 타이틀을 얻었다. 더욱이 기탁한 성금 100만 원은 학교에서 받은 첫 장학금으로 알려져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유은재 학생은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주)그린이엔에스, 폐기물 재활용 비용 기탁**  
 (주)그린이엔에스(대표이사 이숙희) KT 현장 근로자들이 1년 동안 폐기물을 수거해 마련한 성금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광주 31호 아너 이숙희 대표이사는 현장의 노고에 감사함을 담아 근로자들의 기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마련한 성금은 저소득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



**오성철강(주) 유동현 대표, 아버지 뒤이어 아너 가입**  
 오성철강(주) 유동현 대표가 대전 97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대전 34호 아너 회원인 오성철강(주) 유재욱 회장의 아들인 유동현 대표의 아너 가입으로 대전 사랑의열매 두 번째 부자 아너가 탄생했다. 유동현 대표는 “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실천해오신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웃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본받고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삼진정밀, 나눔리더 단체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주)삼진정밀 정태희 회장과 이종연 대표, 정호영 대표가 대전 사랑의열매 나눔리더로 단체 가입하며 지난 2월 16일 가입식을 진행했다. 정태희 회장은 “나눔리더 가입에 동참해주신 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고, 정호영 대표는 “좋은 기회로 나눔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종연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



**신정한마음회, 10년째 이어온 따뜻한 나눔**  
 신정한마음회(회장 윤석호)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성금 12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신정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신정한마음회는 2012년 12월 첫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석호 회장은 “한 해를 시작하며, 10년째 이어온 나눔을 회원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KCC, 온정 가득한 성금 1억 원 전달**  
 (주)KCC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사회 공헌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울산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개인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기능 보강 사업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KCC는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돌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지역 아동 보호 차량 도색 및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경기



**가수 은가은과 팬클럽, 여성 청소년 위한 위생용품 전달**  
 트로트 가수 은가은과 팬클럽 응가더러버,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연합회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여성 위생용품 1,500팩을 기탁했다. 해당 위생용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전달했다. 가수 은가은은 “가정 형편 때문에 여성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MRO와 요리 연구가 에드워드 권, 성금 기탁**  
 한국사회복지MRO(대표 김상권)와 요리 연구가 에드워드 권이 경기 사랑의열매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한국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상권 대표와 에드워드 권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북부



**김성기가평군수, 임인년 첫 가평군 나눔리더 가입**  
 김성기 가평군수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가평 13호 나눔리더이자 올해 첫 번째 가평군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1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해 꾸준히 나눔에 동참해오고 있으며, 기부 누적 횟수도 215건에 달한다. 김성기 군수는 “가평군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인재개발원, 복지시설 차량 지원**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GS칼텍스 인재개발원(원장 정성용)이 지난 2021년 7월에 기탁한 3,000만 원으로 구입한 차량을 설악가족행복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차량은 센터 이용 회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한다. 기증식에 참석한 정성용 원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기탁한 성금을 이렇게 가치 있게 사용해주어 더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원



**원주시나눔봉사단, 3·4대 단장이 취임식**  
 지난 1월 26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원주시나눔봉사단 제3대 김종태 단장이임식과 제4대 서종성 신임 단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임기를 수행한 김종태 단장은 “신임 단장과 봉사단이 시너지를 만들어 더욱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종성 신임 단장은 “봉사단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성금 500만 원 기탁**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경미)가 강원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경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019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충북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꾸준한 나눔 실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이명식)이하 충북연합회)가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9,410만 340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2020년 한 해 동안 5개 지회(청주흥덕청원구,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와 충북연합회 경로당 회원들이 경로당에 설치한 모금함에 싹짓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2018년 '경로당 어르신 사랑의 저금통'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계속 성금을 기탁하며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현 위원장, 성금 전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현 위원장이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남기현 위원장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의 정책 결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달식에서 남기현 위원장은 “소중한 기부금이 소복소복 쌓여 커다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대표 빵집 이성당, 나눔명문기업 가입**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군산의 이성당(대표 김현주)이 1억 원을 기탁하며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이성당은 이번 기부 외에도 관내 저소득 아동을 위한 생일 케이크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현주 대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OCI(주) 군산공장, 119안심하우스 사업 1,000만 원 후원**  
OCI(주) 군산공장(공장장 한철)이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119안심하우스에 1,000만 원을 후원했다. 119안심하우스는 불의의 화재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을 위해 지역의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 새 집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2017년 시작한 119행복하우스의 확장형이다. 한철 공장장은 “평소에도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계룡건설, 희망2022나눔캠페인 동참**  
계룡건설(사장 이승찬)이 충남 사랑의열매에 희망2022나눔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승찬 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눔명문기업인 계룡건설은 희망의 끈 잇기 운동,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등을 후원하며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착한일터 업무 협약 체결**  
충남 사랑의열매와 충청남도홍성의료원(원장 박래경)이 착한일터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저소득 환자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월급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일터 기금을 활성화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기부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래경 원장은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시니어클럽, 이웃사랑 성금 기탁**  
곡성시니어클럽(관장 김석기)이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웃사랑 성금 156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급여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했다. 김석기 관장은 “십시일반 함께 모은 소중한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웃에게 도움이 되면 더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아동 보호 사업비 전달**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지부장 권용대)가 전남 사랑의열매에 아동 보호 사업비 2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업비는 나주시에 위치한 이화영아원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권용대 지부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는 최근 2년간 총 1,8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으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



**바른유병원 김정진 원장, 아너 가입으로 나눔 실천**  
 평소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많은 바른유병원 김정진 원장이 먼저 아너 회원이 된 남편의 권유로 경북 132호 아너로 가입했다. 배우자인 바른유병원 유영상 원장은 경북 109호 아너로, 두 사람은 구미시 첫 번째 부부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김정진 원장의 가입식은 구미시청에 설치한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존에서 실시했으며, 가입식과 함께 홍보존 제막식이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설 명절 지원금 전달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지난 설 명절에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김천시 추천을 받아 선정한 지역 내 저소득 가정 10가구에 총 300만 원의 제수 비용을 전달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다온보호작업장을 찾아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1,7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후원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지역에 보탬이 되는 나눔을 계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주)현대정밀 길옥장학회, 인재 육성 장학금 수여식**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에 경남 1호로 가입한 (주)현대정밀 길옥장학회가 첫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경남 도내 예비 대학생 20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했다. (주)현대정밀 오춘길 회장은 “장학 사업은 오랜 염원이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첫 수여식의 소회를 밝혔다. 장학 사업은 앞으로 40여 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경남지역발전협의회·경한국리아, 성금 1억 원 쾌척**  
 경남지역발전협의회와 경한국리아가 경남 사랑의열매에 희망 2022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을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탁했다. 경남지역발전협의회 이상연 이사장(경한국리아 대표이사)은 “작은 정성이 모인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에 희망과 꿈을 전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광동제약,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건강음료 후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지난 2월 16일 제주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광동제약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료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총 5,000만 원 상당의 음료를 기탁했다. 음료는 도내 노인지원센터와 아동센터 등의 시설에 제공했다.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의 도와 지역 위탁 판매를 맡은 인연으로 제주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제주도협의회, 한돈 나눔 행사**  
 (사)대한한돈협회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돈 나눔 행사를 열고 제주 사랑의열매에 2,220만 원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기탁했다. 돼지고기는 도내 사회복지 기관과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전달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 9년째 맞이한 한돈 나눔 행사는 제주의 대표적 물품 나눔 행사다.

세종



**사랑의다리 장학회 정찬의 대표, 장학금 수여**  
 사랑의다리 장학회 정찬의 대표(세종 5호 아너)가 세종 사랑의열매에 세종 지역 내 취약 계층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2월 12일에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세종시 정비노기과 병원에서 졸업생 10여 명을 초대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졸업생 외에도 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을 선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민관 협력 사업에 1,500만 원 배분**  
 세종 사랑의열매가 세종사회보장위원회에 2022년 기획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민관 협력 사업비 1,500만 원을 전달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민관 협력 사업은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취약 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 교육 및 운영 방향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간단하지만, 참 많은 일을 하는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기부금을 모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의열매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어르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돌보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도움을 손길을 내밉니다. 또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새 나라, 새 일꾼  
 신입 직원 김예설 Yes, sir!  
 1화 - 김예설, 면접을 보다!

나 김예설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멋있다.  
 뭐가?  
 대통령? 아이고 우리 애가 크게 되려나 보네.  
 아니 그거 말구. 저 열매.  
 웬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멋져 보였다.  
 무료 음식 나눔  
 아이고 젊은 청년이 봉사 활동도 오고 훌륭하네.  
 힘들지만 보람차네요!  
 그리고 평소 관심 있던 광고홍보학과에 진학했지만...  
 바로 저거였어!  
 마침 신입 채용 공고에 홍보 직무도 있고  
 앗, 저 열매는?  
 저거다!  
 이건 운명이야!  
 그리고 대망의 면접일.  
 사랑의열매의 역할과 정부 복지 정책의 차이는 뭐죠?  
 김예설 씨, 사랑의열매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는지요?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구축구석을 돕습니다!  
 네! 국민의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지원합니다.  
 네. 다음 지원자분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복지 기관에서 실습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엇, 나만 빼고 모두 사회복지 전공자?!  
 네!  
 아... 난 탈락인 건가?  
 다음 화에 계속...

글-그림 오동진